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8차 회의, 그리스도의 3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3부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8,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3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의 예언적 직분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서 그가 선지자 이상임을 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버지 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때, 그는 1세기 헬레니즘 문화에 말을 걸고 있지만, 루돌프 볼트만과 다른 사람들의 주장과 달리, 그는 그 문화에서 로고스의 개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구약성서의 개념인데,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특히 처음 다섯 구절에서, 창세기 1장 1절과 그 이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조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처음에 칠십인역 또는 창세기 1장의 그리스어 번역본의 단어가 그 단어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1절은 창조에 대해 말하고, 3절은 빛과 어둠에 대해 말합니다. 저는 창세기 1장에서 문자적인 빛과 어둠, 여기서는 은유적인 빛과 어둠을 이해하지만, 그것이

요한의 배경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구약성서의 창조 배경에서 로고스를 사용하지만, 로고스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었던 1세기 헬레니즘 세계에 대해 말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의 입장에서 현명한 움직임으로, 구약 성경에 그의 메시지를 근거로 하면서도 로고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던 1세기 세계에 말함으로써 그의 메시지에 대한 관심을 자극합니다. 큰 포함, 큰 카이아즘이 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규칙적인 병렬 구조는 이 글자들이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패턴을 따릅니다. A, B, C, C, B, A, 당신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습니다, A, B, C, D, D, C, B, A, 원하는 만큼, 당신은 원하는 만큼 많은 구성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서문은 요한복음 전체를 소개하는 부분으로, 문학적, 신학적 걸작입니다. 복음서와 서문은 모두 카이아스틱 구조, 카이아즘 또는 역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아즘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키(chi) 또는 키(chi)에서 유래되었는데, A, B, B prime, A prime이라는 글자를 나열하고 이를 연결하면 큰 X 또는 카이(chi)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A, B, C, D와 같은 역 병렬입니다. 정규 병렬은 정확히 반대로 한 것 같습니다. 정규 병렬은 죄송합니다. A, B, C, A, B, C 또는 A, B, C, D, A, B, C, D가 될 것입니다. 역 병렬 또는 카이아즘은 이를 반대로 합니다. 따라서 A, B, C, C, B, A와 같거나 이 경우에는 A, B, B prime, A prime입니다. A는 아들, 하나님의 선재하신 아들이지만 아직 그렇게 불리지 않았고, 1절에서는 말씀으로 불리고, 적어도 7절에서는 빛으로 불립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1절에서 말씀으로 불리고, 아들은 7절에서 빛으로 불립니다. 요한이 일반적인 병렬법을 따른다면, 말씀, 빛, 말씀의 성육신, 빛의 성육신이 있을 것이지만, 그는 그것을 뒤집습니다.

1절에서는 말씀이고, 7절에서는 빛이지만, 9절에서는 빛에 대한 성육신이고, 14절에서는 말씀에 대한 성육신입니다. 사실, 성육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14절과 9절에 더 적합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조명이라고 불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명은 인간이 된 영원한

아들인 한 분에 의해 제공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1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하기 위해 빛을 증거하기 위해 증인으로
왔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었지만 빛을 증거하기 위해 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빛, 그리고 이제 빛, 참 빛이라는 측면에서의 성육신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데, 여기서 종종 제시되는
철학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상 사역에 접촉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 빛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1
절. 빛, 7절과 8절에서 적어도 그렇습니다. 빛이라는 측면에서의 성육신,
9절. 말씀이라는 측면에서의 성육신, 14절.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이 카이아스 구조는
무슨 일인가요? 카이아스 구조는 문학의 요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므로,
문학을 하나의 단위로 만듭니다. 하지만 확실히, 우리가 방향을 따르면,
참 빛이 세상에 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으로 명명된 것,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성육신이라는 주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한 복음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위대한 전제입니다.

요한이 말씀과 빛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는 우리가 예수님의
예언적 직분으로 이해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단어를 사용하며,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들, 말씀을 보내셨고, 칼빈이 그의 메시지, 그의 연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맞아요. 17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우리를 위해 해석해 줍니다.

미안합니다. 18.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곁에 계신
유일한 하나님이 그를 알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복음서와 요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의 계시자라는 태그를 사용합니다.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신의 궁극적인 계시자이며, 그의 성격, 그의 말, 그의 기적으로 그를 알립니다.

요한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보통 그것을 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신을 계시하는 분입니다.

그는 신의 말씀, 인류에게 한 그의 연설입니다. 확실히 이것은 예수의 예언적 직분과 겹칩니다. 사실, 그는 예언자 이상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에 없던 것처럼 알리는 영원한 말씀이며, 그가 빛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이미지입니다. 빛은 사물을 비추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참으로, 예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는 인간을 비추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9장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후에 그리스도의 I am 말씀을 논의할 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 그림이자 말씀이자 빛인 예수는 그를 하나님의 계시자로 말씀합니다.

빛에 있어서, 빛을 주는 참 빛이 세상에 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참 빛이 세상에 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묘사됩니다.

요한의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빛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이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음서의 많은 주요 주제가 여기 서론에서 소개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목적을 위해 예수는 단순한 선지자 이상입니다.

그는 창조물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은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것을 가르칩니다. 말씀 안에,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넷째 복음서에서 조어가 사용된 모든 용례는 영생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생은 로고스, 즉 말씀 안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3절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대행자, 즉 우리가 올바르게도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만 거주하고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타난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목적적 소유격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비추어지고 신에 대한 지식을 가져온다. 따라서 요한은 서론의 처음 다섯 구절에서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어둠이 그것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는 말씀이 그의 성육신에서 된 것의 인간적 이름이며, 말씀, 아들, 성육신 이전의 신의 아들은 그가 만든 것들 속에서 신으로서 신을 계시했다.

그는 창조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은 말씀이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거듭 거듭 그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아버지와 모순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행한 행위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행하라고 주신 행위이고, 등등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요한의 두 가지 주제, 말씀과 빛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하지만 선지자 이상의 존재로 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격, 설교, 표적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신을 드러냅니다. 7장에서 성전 경찰이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파견됩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전에는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신도 이 폭도, 이 균중처럼 미혹되었습니까?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들조차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는 너무 과합니다. 그는 신을 계시하는 자입니다.

그는 또한 신을 I Am의 말씀에서 계시합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세례자 요한 자신, 말하자면 신약에서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손을 내밀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신의 대변인.

예수는 "나는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1인칭으로 신을 대신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신성에 대한 주장입니다.

일곱 가지 I A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I Am이 예수가 선지자이며 선지자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인간 선지자입니다.

그가 "나는 있다"라고 말할 때, 신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신보다 신을 더 잘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나는 있다"라고 말할 때, 그는 신인으로서 말씀하시며, 인간의 말과 말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신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맥락화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14장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너희가 아버지 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삶을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드러냅니다 .

우리는 신격의 인격으로서 서로 내주합니다. 저는 여기서 필드를 얻고 있고 , 제 체계적인 신학이 저를 이기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 I Am 명언.

순서대로, 예수께서 보여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입니다(6장).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8장과 9장 모두에서). 나는 양 우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10장).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입니다(10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11장).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하지만 14장에서는 일곱 가지 I Am 말씀 중 하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존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는 일곱 가지 I Am의 가르침을 한 가지 말씀으로 은혜롭게 요약합니다.

왜냐하면 일곱 개의 I Am이 있지만, 세 가지 다른 의미만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 중 일부는 같은 의미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라는 말은 그분이 길이요 유일한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는 진리이며, 신을 계시하는 자이며, 그는 생명이며, 영생을 주는 자입니다. 서문을 볼 때 제가 말하지 못한 것은, 예수가 신의 육신 전 계시자일 뿐만 아니라, 3절에서 그는 육신 전 생명 주는 자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창조에서 아버지의 대리인입니다.

그는 성육신하기 전에 모든 것에 생명을 주었으므로, 다시 한번, 그는 성육신에서 생명을 주는 자가 될 자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지. 그래서 14장 6절의 한 말씀에서, 예수는 일곱 말씀의 의미를 요약합니다. 예수는 참으로 선지자이며 선지자 이상입니다.

그는 성육신한 신이며, 신이 전에 결코 계시되지 않았던 예언적 직분으로 신을 계시합니다. 나는 I am's 를 살펴볼 것입니다. 글썄요, 먼저 문맥상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많은 방이 있는 그의 아버지의 천상의 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6에서 그는 내가 길이라고 말합니다. 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odos 입니다 . 길 또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도로를 번역하면 이미지를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이 집을 가지고 계시고, 그 집으로 가는 길은 아들 외에는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하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의미는 그가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다른 구절은 같은 의미로 10장 7절에 있습니다. 나는 양들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4:6이 하늘의 집 이미지와 그곳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 즉 하나님의 아들을 사용한다면, 10장 7절은 양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말하자면 교회의 지상적 그림을 사용합니다. 나는 양 우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무슨 뜻인가? 그는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세상의 구세주이며, 양 우리로 들어가는 문인 지상의 그림과, 많은 방이 있는 아버지의 천상의 저택으로 가는 길인 천상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모든 I am 과 그 의미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예수가 주신 것입니다 . 일곱 가지 I am 중 가장 널리 퍼진 의미 는 1, 2, 3, 4, 5인데, 14.6을 세 번 셀 수 있으므로 세 가지 의미를 모두 주기 때문에 곱해집니다. 다시 말해, 14:6 외의 다른 네 가지 I am 에서 예수는 생명 주는 자로 제시됩니다.

다시 한번, 1장 3절에서 그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었고, 그가 생명을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조 전에 생명을 주는 자였습니다. 이제 그는 창조 후에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우리는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다른 것들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는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 빵과 물고기를 곱함으로써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먼저 그는 5,000명을 먹이셨고, 그런 다음 그는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단어, 두 표징 모두 5,000명을 먹이고 있으며, 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입니다. 빵이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지탱하는 것처럼, 예수는 영적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는 주시는 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베푸는 분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양들은 나를 알고, 여기에 내가 내 양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립니다. 아무도 내게서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10장. 나는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취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흥미롭게도, 요한복음 2장과 10장에만, 성경 전체에서 그것이 사실인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그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그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명확한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는 말하며, 친구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린다. 아니,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는 악취가 날 거예요, 자매 중 한 명이 말한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한다. 정말 아름답다.

죽음의 인간적 악취는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요한의 말에는 우리를 위한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의 법안은 악취가 납니다.

그들은 그 시체가 어떤 냄새인지 알고 있지만, 그의 친구 예수가 그를 죽음에서 살려냈기 때문에 그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종말론적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나사로는 중동을 돌아다니지 않았지만, 그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12장에서 나사로가 이 연회에 왔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가 살아 있는 증거적 변증자이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로와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소년들은 결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있는 말이나 행동은 없습니다 . 그들의 마음은 그를 완전히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과 모순되는 것을 고집하고, 은혜 속에서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말했듯이, 많은 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생명의 빵이며,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는 부활이며 지금의 생명입니다.

그는 가지에 생명을 주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것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일곱 가지 I am 중 두 가지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는 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를 신의 계시자라고 말하는데, 이 주제는 서론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납니다. 서론에서 예수는 빛, 세상에 오는 참 빛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니, 14:6.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져오는 분이며, 특히 그의 말씀과 그의 행위와 그의 성품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일은 9장, 눈먼 사람을 고치는 일입니다. 8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9장에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칩니다. 그러기 전에 그는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계시자입니다.

여기서 그는 표징으로 그것을 보여주며,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인정에 따르면, 그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구약성경에는 그런 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것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는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는 신에게서 온 사람이어야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정말 화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들어본 것 중 가장 비꼬는 말입니다. 시각 장애인은 헬렌 켈러, 점자, 안내견의 이점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zip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무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식한 전직 눈먼 사람이 이스라엘의 학자들과 지도자들을 견뎌내고 그들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눈이 멀었을 때,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눈먼 채로 태어나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압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회당에서 쫓아낼까봐 말하지 않았던 그의 부모와는 달리, 이 사람은 예수를 위해 일어섰기 때문에 스스로를 내쫓았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과 같은 신화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채로 태어났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내가 행할 기적, 표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전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리고 존은 누군가가 당신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어둠 속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장의 마지막은 가장 아이러니합니다. 오, 예수가 그 남자를 찾아냅니다 . 타락 후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찾아낸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눈이 멀어서 예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돌아와 보니 예수가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는 그 남자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느냐? 그는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방향을 가리켜 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는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 주님,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경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위해, 나는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보는 자들은 한 번 이상 눈이 멀게 될 수 있느니라.

그는 내가 심판을 위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빛, 신의 참된 계시자는 그의 말과 그의 행위로 사람들을 비춘다. 그리고 두 가지 반응이 있다. 불행히도 서론의 순서는 믿지 않는 반응이 믿는 반응보다 앞선다.

9절과 10절은 불신을 보여주고 , 11절과 12절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이 눈이 멀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진술의 시작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누군가를 눈멀게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그의 빛, 세상의 빛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에게로 돌아와 구원받고 믿을 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빛에서 보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눈이 멀게 될 수 있습니다. 은유를 바꿔 말하면, 죄와 반대에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의 가까이에 있던 바리새인들 중 일부는 이런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눈이 멀었나요? 우리는 영적이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위대하지 않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눈이 멀었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의 영적 빈곤, 당신의 영적 눈멀음을 내 빛에서 보았다면, 당신은 나에게로 돌아와 믿을 것이고, 당신은 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우리가 나 외에 세상의 빛을 본다고 말하니, 네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너는 네 죄에 굳어졌구나. 참으로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진리이다.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들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뛰어넘고 바로잡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계시자이며,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자 빛입니다. 그는 "나는"이라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1인칭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삼중적 직분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신에 대해 경건하게 말합니다. 왕이 되려면 다윗을 통해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모세의 형인 아론을 통해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예수는 유다 출신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왕이 될 자격을 갖추게 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동등하다면, 유다의 대부분 후손은 그가 가진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신권은 어떻습니까? 그는 레위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지파 출신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선한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는 다른 신권을 고안합니다.

그것은 매우 배타적인 신권입니다. 그 안에는 멜기세덱과 예수라는 두 사람만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인물은 창세기 14장에서 성경 기록에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온 후, 우리는 17절에서,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물리친 후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갔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흔한 음식과 음료였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는 신비롭게 나타납니다. 족보가 주어지지 않았고, 그것은 그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유형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은 아버지나 어머니 없이, 족보 없이도 의미가 기록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원히 제사장으로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역사적 인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유형, 예표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며,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아브람에게 축복이 있기를, 그의 이름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 그리고 당신의 원수들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아브람은 그에게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주었습니다.

시편 110편, 메시아 시편까지 멜기세덱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전부입니다. 그리고 제 이해가 맞다면, 그것은 독특하고 전적으로 메시아 시편입니다. 즉, 그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가올 미래에 대해 말하는 듯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역사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시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맥락에 대해 말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확대하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 브루스 월트키가 시편에 대한 글과 비디오테이프에서 보여준 것처럼요. 답은, 만약 그것이 전적으로 예언적이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편 110편 1절에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명의 영주를 가졌습니다. 왕 다윗과 하늘의 신입니다. 다윗은 한 명만 있으므로 처음부터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두 번째 영주는 메시아적 인물입니다.

주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으라. 가장 큰 존귀와 권위의 자리. 신약에서 예수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승격될 때 자주 인용된 구절입니다. 그런 다음 4절에서 주께서 맹세하셨고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니라.

왕이 될 오실 분, 주님께서 싸우실 분, 시편 110편, 그의 원수들을 이기는 데 있어서, 레위나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 있는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적 요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또 다른 제사장직을 세우셨으므로, 그의 아들은 유다의 왕이자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나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그 순서로 사제가 될 수 있나요? 맹세로. 이 맹세로. 주님은 맹세하셨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오실 분, 메시아적 인물로서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과 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아들과 일치합니다. 어떤 인간 왕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제사장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만, 예수는 충족합니다.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의 유형, 역사적 예표이며, 하나님의 위대하고 마지막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신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제사장적 사역에는 무엇이 수반됩니까? 반원 여러분, 그 질문을 해주셔서 기쁩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수반합니다: 속죄와 중보. 히브리서 9장 10절과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셨을 때,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하여, 그는 한 번만 영원히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늘, 곧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하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확보합니다. 이 제사장은 제사장이자 희생제물인 독특한 존재로서 영원한 구원을 확보합니다. 제사장직이 영원한 그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해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는데,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이 사제는 한 인격 안에 신이자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속죄를 합니다.

우리는 다가올 강의에서 그리스도의 행위, 구원 행위, 그의 일, 그의 십자가형과 부활에 연합된 그의 심장과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속죄 주제를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아니면 히브리서 10:11-14는 어떨까요? 그리고 모든 제사장은 매일 서 있고 모든 레위 제사장은 같은 제사를 거듭거듭 드리는데, 그것은 결코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드리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의 일의 최종성, 그의 제사장적 제사가 끝났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원수가 그의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으니, 한 번의 제물로, 다시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0:14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고, 회개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일하심에 따라 죄에서 돌이킬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오, 그들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시고, 그것은 그들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산다. 완벽하게? 절대. 하지만 그들은 거룩해지고 있다.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그 추구가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가 맞나요? 틀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입니다. 한 번의 제물로, 신인, 주 예수께서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거룩함을 추구함으로써 그들을 알아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근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신 것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에 있어서 탁월한 제사장이시며,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시고 결코 당신을 거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그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위해 사는 데 큰 동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삼중 직분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부로서의 제사장 사역은 또한 중보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4 절은 "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리요?"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저는 지옥 구절을 광범위하게 연구했고 많은 책을 썼습니다.

지옥 교리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자가 누구인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절의 절반 정도는 아버지입니다.

약 절반의 구절에서 아들입니다. 제가 완전한 체계적 진술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결코 언급하지 않지만, 심판하는 분은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문적으로 말하면, 절반은 아버지이고 절반은 아들입니다.

누가 정죄하겠는가? 아들? 아, 아들은 그의 백성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심판자이시지만,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심판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누가 정죄하겠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죽으신 분이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부활하셨는가입니다. 누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는가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는가입니다.

로마서 8:34. 온 땅의 심판자는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바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구원자를 위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위대한 대제사장인가요, 참으로.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중보의 사역을 보여주는 한 에피소드를 봅니다. 누가복음 22:31 이하에서 예수님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요구하여 너희를 체질하려고 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 제자들, 그리스어로는 복수형입니다.

밀처럼, 우리는 그 체질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좋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는 여기서 그들을 흔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미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것은 흉악한 것입니다. 사탄은 해를 끼치고 싶어합니다. 사탄이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는 이 경우에 와서 그리스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가 여러분을 밀처럼 체질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단수형, 베드로.

당신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돌아섰을 때, 그것은 실패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뜻인가요? 당신이 궁극적으로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요구하여 너희를 체질하려 하였노라. 너희를 다 밀과 같이 체질하려 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베드로, 너를 위해 기도하였노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지경에서 과신하여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 저는 당신과 함께 감옥과 죽음에 모두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수탉이 울지 않을 때까지는 당신이 나를 안다고 세 번 부인할 때까지는요. 그들은 모두 당신을 부인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블라, 블라, 블라, 블라. 오, 피터

그리고 예수는 그들에게 힘든 교훈을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것은 그를 몇 시간 동안 때리는 교도소 경비대 소대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20명의 남자들이요. 하녀들이요.

당신은 그와 함께 있지 않았나요? 아니, 저는 그를 모릅니다. 당신의 말씨로 보아 당신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와 함께 있었죠? 그는 자신을 저주합니다.

그에게 저주를 내린다. 예수를 세 번 부인한다. 오, 세상에, 피터.

베드로는 실제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쓰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흔들리는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오해된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고백을 연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가 부인한 것.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베드로는 슬퍼합니다, 요한이 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 번째로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를 힘든 회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초기 교회의 강력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허세, 자랑, 자신감을 길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리더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패로 인해 겸손해진 리더.

그리고 그리스도의 회복에 감사하며,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나는 네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그리고 네가 다시 나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네 형제들을 강화하라. 참으로, 그는 그렇게 했다.

자랑하던 베드로는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놀라운 방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주님과 구세주를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직책 중 두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왕권에 대해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창세기 49:8~12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권은 유다 지파와 혈통을 통해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처럼 왕을 요청한 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왕으로 거부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대신 열방과 같은 왕을 받아들인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지상의 왕을 통해서. 신명기가 규정한 대로.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은 왕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10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사야 9장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메시아적 구절에서 지배적인 것은 통치, 왕권의 언어입니다. 왕권.

이사야 9:6.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며, 그의 어깨 위에 정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통치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조연자, 강력한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자, 통치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의 정부의 증가와 평화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서서 그것을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지지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의 성취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왕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무엘하 7:14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허리에서, 그의 혈통에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왕국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은 실제로 예수의 사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는 그의 말씀과 행위로 하나님의 영적 왕국을 가져오는 왕입니다. 그는 왕국의 비유를 전파합니다(마태복음 13장). 그의 행위, 특히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는 왕국을 예고합니다.

마태복음 12:28.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왕이시며, 신약에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지상 사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왕국은 예수님의 승천에서 더욱 확장됩니다.

승천하면서 예수님은 제한된 지상 영역에서 초월적인 천상의 영역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는 시편 110편의 성취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 권능과 주권보다 훨씬 위에 계셨습니다(에베소서 1장, 20장, 21장).

지금과 영원토록. 예수께서 오순절에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수천 명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크게 확장됩니다.

사도행전 2:41, 47, 4:4.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치자와 구세주로 오른편으로 높이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31.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둠의 영역에서 구출하여, 인용하자면, 그가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 주신다고 썼습니다. 골로새서 1:13, 14. 실제로, 왕국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교회에 영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승천하심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나 왕국은 그의 재림, 즉 그의 재림에서만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상 사역에서 왕국을 가져오시고 오순절에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지만, 왕국의 총만함은, 인용하자면,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와서 그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31. 그러면 천사들이 선포할 것입니다. 인용하자면,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무궁토록 통치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15.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믿는 자들을 초대하여 왕국을 상속받으시고, 손실은 영원한 형벌에 맡기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31~46.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왕국을 아버지께 넘기시고, 고린도전서 15:24를 인용하실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1장에서 세 가지 직분을 가장 아름답고 교화적인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8,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3부입니다.